



명씨대중회장
명 광 길

시조 황제의 위대한 사상과 꿈을 잘 이어받아
오늘 보다 더 큰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제37차 정기총회

2015년 5월 5일 (화), 오전 11시 대하파안 기념관 1층 행사장

중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우리 명씨대중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정기총회, 시제, 중국 중경의 시조 예루 추모방문과 수주의 시조 탄생지 방문, 중화명씨사당 방문, 그리고 제1회 명씨어린이 창작작품 공모전 등 모두가 우리 명씨 발전과 대중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친 모두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더 보태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친 여러분, 저는 아무쪼록 우리 명씨대중회 회장으로서 오늘 보다는 내일을 더 알차게 만들어 간다는 생각과 각오로 우리 중친회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채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했던 것을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이 해나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중친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으고 단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생각일지라도 중친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대중회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 중친 간의 결속을 단단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대중회를 믿고 따라주는 여러 지방중친회 회장님을 비롯한 총무님, 그리고 여러 중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친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를 마칠 때까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해왔던 일을 보다 더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정, 보완, 발전시켜야 할 일도 많습니다. 대중회 홈페이지, 중화명씨들과의 교류 활성화와 시조사 연구, 보다 많은 중친들의 대중회 참여를 통한 단합과 결속력 강화방안 마련 등 살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중친 간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명씨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우리 명씨의 신문, 명씨대중보는 처음 발행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명위진 전 회장님께서 경비일체를 부담해서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매우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서 우리 명씨의 역사기록을 써 나가기 위한 책임과 그

기록의 내용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점 빠짐이 없어야 함은 물론,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를 모으는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발행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광고 유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고제품에 따라서는 전국의 27,000여 중친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원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습으로 명씨대중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친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명예회장님들과 고문 및 임원 여러분! 우리 명씨가 발전하고, 대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대중회 행사에 동참해주신 중친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시조황제님의 위대한 사상과 꿈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중친 모두의 도리이고 책임이며, 의무임을 잊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중친 여러분, 내내 좋은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5일 11시, 대하



5월 5일 11시, 대하





대하장학회 이사장 명동성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2015년도 장학생 26명을 선발하고,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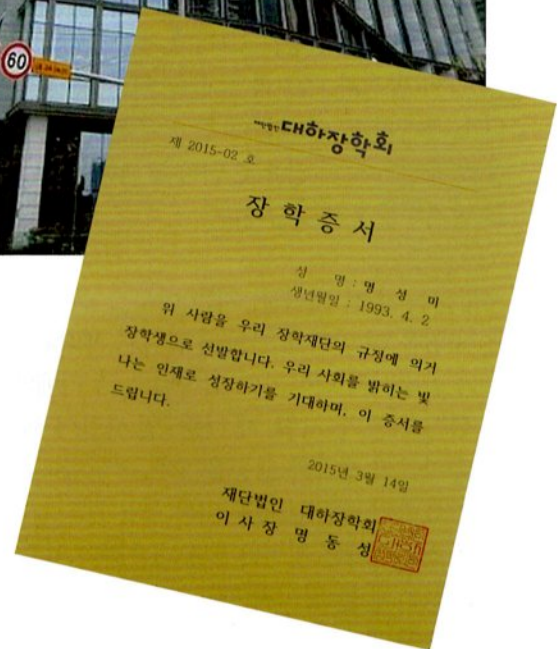
재단법인 대하장학회(이사장 명동성)는 2015년 3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스테이트타워남산 8층에서 2015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26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대하장학회 명동성 이사장은 선발된 장학생 전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학생에 대한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인재의 소중함과 대하장학금 수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명동성 이사장은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설립의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인재발굴과 육성이 가장 값진 투자라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신 명위진 장학재단 설립자님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고 힘주어 말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 모두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훌륭한 성공을 이룸으로써, 대하장학금의 의미를 크게 해줄 것"과 "성공을 이룬 장학생들이 또 다시 장학금을 기부하는 순환의 구조로 만들어 대하장학재단이 끊임 없이 발전하고, 설립자의 장학재단 설립 취지를 살려 장학재단이 우리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학생 모두가 더욱 노력하고 역할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부탁의 메시지를 전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해마다 3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 선발된 대하장학생 26명은 장학금 신청자 총 62명이 제출한 소정의 장학금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와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대학, 대학원 재학생들이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지난해까지 장학생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이사회에서 최근 1%대로 낮아지고 있는 은행금리를 고려하여 장학금 하향조정을 의결, 올해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단, 재단 장학기금 수익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 장학금 또는 수시 장학금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하였다. 따라서 대하장학회는 올 하반기 한차례 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최종 확정 및 집행 여부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성 연	서울대학교/약학대학 4학년
명 성 미	광주대학교/작업치료학과 3학년
명 예 술	대전대학교/한의학과 3학년
명 성 민	명지대학교/경영학과 2학년
명 연 진	세종대학교/호텔관광학과 3학년
명 우 영	한서대학교/해양스포츠학과 1학년
명 호 진	순천청암대학/간호학과 4학년
명 종 욱	PATTSCollegeofAeronautics 2학년
명 건 우	동의대학교/레저스포츠학과 1학년
명 재 현	충북대학교/국어국문학과 1학년
명 재 민	한남대학교/도시부동산학과 3학년
명 석 호	대전대학교/군사학과 1학년
이 서 희	건양대학교/병원경영학과 2학년
권 휘 강	강원대학교/간호학과 3학년
명 순 일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강 채 영	연세대학교/테크노아트학부 2학년
명 정 수	대진대학교/법학과(야) 1학년
명 노 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기계공학부 3학년
명 호 영	경기대학교/전자공학과 1학년
명 성 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과 음악교육 2학년
명 서 희	조선대학교/화학교육과 1학년
안 권 민	서울대학교/성학과 2학년
명 환	충남대학교/화학과 2학년
명 지 현	인천대학교/기계로봇공학 2학년
명 재 익	서강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1차 학기
권 해 인	서울대학교/아동가족학과 3학년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설립자 명위진 — “기대와 믿음으로 가능성을 응원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설립자 명 위 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 한 가운데 2015년도 '대하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 중에는 어려운 역경을 딛고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뚜렷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행불무득(行不無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의 앞길에 생각지 못한 어렵고 험난한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왜 이 길을 가야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많이 갖길 바랍니다. 둘째는 항상 연필과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떠오르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왜?'라는 질문과 수많은 메모가 먼 훗날 여러분의 성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장학생 여러분, 우리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오늘 여러분과의 이 인연을 시작으로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응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걸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하장학회가 계속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대하장학회 장학생 여러분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대하장학생 선발 소감



명 재 익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안녕하십니까. 장학금을 주셔서 학업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대하장학회 설립자님,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꿈꿔왔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 장학금은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업과 효도를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명씨로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랑스런 자리에 서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매사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채 영

(연세대학교 테크노아트학부)

고등학교 3년간의 수험생활이 끝나고 희망하던 대학교의 합격통지서를 받아들자, 그 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보상인 듯한 기쁨과 즐거움이 몰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입시가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쁨 가운데에서도 불안함이 살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생에 비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큰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며 책임이 되었음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러한 불완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대하장학재단에서 받은 이 기회는 제게 더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진로를 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으로 저를 선발해주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열매를 채 맺지 못한 어린 나무에게서 실한 열매가 열릴 것을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하장학재단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보내 주신 큰 신뢰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의 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여 큰 나무로 자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학업에 더욱 성실히 임하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저의 장래희망을 이루고 싶습니다. 대학교에서의 공부는

종착지가 아니라 꿈을 이뤄가는 과정의 하나인 만큼, 학교에서의 공부에 안주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공부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보다 나은 사람으로 계발하는 과정에서 장학재단에서의 지원이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가 받은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저 역시 스스로의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은 불완전한 위치에 있을 아이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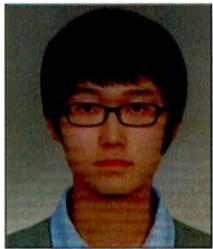
명 순 일

(이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사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전문성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년여의 수험생활 끝에

로스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합격의 기쁨도 잠시, 연2,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던 중 대하장학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하장학회는 열심히 공부하는 명씨 후손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이것이 저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장학금 지급 대상

자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되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하장학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명씨 가문과 종친회의 미래를 빛내는 것은 물론, 받은 것 이상으로 배풀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 성 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15년도 대하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렇게 글로 인사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대하장학회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약학대학으로 편입학하게 되면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대하장학회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이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하장학회에서 주신 장학금을 통하여 학비조달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다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하장학재단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여 볼 때, 주신 장학금을 통하여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명씨 종친과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공 분야인 약학은 향후 사회에 많은 부분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발전을 통하여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명씨 시조이신 명옥진 황제님의 건국이념인 국태민안(國泰民安)과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서 저의 가족과 뿌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자랑스러운 대하국 명씨 황손이라는 저의 뿌리에 대하여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씨 가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일수록 가족애와 정(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대하장학회는 그러한 현대사회의 흐름에 매우 잘 부합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하며 저 또한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이후에 약학 연구원으로서 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선진학문을 이끄는 글로벌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저의 어머니와 더 나아가 명씨 종친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는 어떠한 일의 성과에 대하여 혼자만의 힘이 아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하장학재단과 종친회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 호 진

(순천청암대학교 자연과학계열 간호학과)

2015년 대하장학생으로 선정된 명호진입니다. 장학생으로 뽑

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게 장학금은 학자금을 마련해주고 계신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씨대종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하장학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만큼, 앞으로 제가 훌륭히 성장하여 명씨대종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하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신 명위진 설립자님과 명동성 이사장님, 그리고 명씨대종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여 저 역시 명씨 문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씨 종친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 가득하시고, 큰 발전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권 휘 강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대하장학생으로 선발된 권휘강입니다. 저는 2년 전인 1학년 때

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식으로 생각이 짧았던 터라 장학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군 제대 후 복학을 한 이후로부터는 무언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얻었습니다.

저는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등록금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렵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음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던 올해, 때마침 외삼촌께서 대하장학회에 대해 소개해주셨고 그날 바로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장학금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모님께 짐을 덜어드리고 싶고,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공지사항에 올라있는 장학생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를 영광스럽게도 대하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 명씨 가문에 먹칠하지 않고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인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간호사가 되어 대하장학회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 노 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2015년 3월 15일,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서 가끔 갔었던 명씨대종회 행사 이후, 처음으로 대하장학생이 되어 혼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장학증서 수여식장에서 종친들께서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명씨 조상에 대한 이야기와 대하장학회의 설립에 대한 배경이야기와 덕담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로 종친들에 대한 존경심과 뿌리에 대한 자긍심으로 우쭐할 정도였다.

대하장학회를 설립하신 명위진 설립자님, 그리고 명씨를 위해 일하셨던 여러 종친 어른들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특히 장학회를 만드신 명위진 설립자님의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소득을 가져오는 투자요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말씀에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뿐인가?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까지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보통사람이 실천하기 힘든 일을 몸소 실천행동으로 옮기신 명위진 회장님의 열정어린 정신에 무한한 존경심이 생겨났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남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을 듯하다. 내가 받은 대하장학금은 가슴 속 깊이 심호흡을 하게 만들었고, 가치로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 장학금이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의 폭을 더 넓혀서,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빨라졌던 그때가 내 생애동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권 해 인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안녕하세요! 권해인입니다. 장학생이 대부분 명씨여서 '권씨면, 어머니 성씨가 명씨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전까지 명씨 성과는 아무런 (사실 친구 중에도 명씨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하장학회를 통해 명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명씨 성을 가진 분들이 모인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명씨와 관련이 없는 제가 덩그러니 앉아있던 경험은 제게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들 아무런 거부감이나 배타적인 모습 없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 주셨기에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하장학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대를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인생 선배가 앞에서 이끌어주면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청년들은 서로서로 도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현대사회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또, 명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끈끈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고, 공유하는 공통점 또한 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너머 후대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명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폐쇄적인 조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다른 성씨의 사람들도 대하장학회 장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대하장학회가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일 수 있었던 저를 스스

럼없이 받아들여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대하장학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관심에 걸맞게 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모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기 가는 길이 달라 지금 인연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않더라도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에 이 인연을 기억하고 함께 정상을 향해 나아가, 그곳에 올라서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 희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제가 2015 대하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3월 14일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려고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너무 설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장학금 수여 장소인 스테이트타워 남산이 눈에 보이자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서울 명동을 여행하다 이 건물을 보고 '이런 건물에는 누가 살지?'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날의 저를 회상하며 스테이트타워 남산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

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과의 인연도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고 명씨 집안의 여러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명씨대중회에서 만난 장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더 깊게 소통하며 보다 훌륭한 일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저의 어머니가 그토록 명씨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명씨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껏 자랑스럽습니다. 장학금의 의미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 종 옥
(PATTS College of Aeronautics
항공대학)

안녕하세요.저는 자랑스런 시조 황제의 24세손 명종 옥 입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마닐라에서 PATTS COLLEGE OF AERONAUTICS 항공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해놓고 과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도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씨 후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투자를 해주시는 모습에 대해 더 큰 감사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하신 우리 명씨 어른들 덕분에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은 제가 3학년이 되기 위한 등록금으로 소중하게 쓸 생각입니다. 저를 키우는 장학금입니다.

현재 항공정비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저의 꿈에 대하장학금이 주는 긍지와 희망의 힘이 보태져 더없이 기쁘고, 자신감이 커집니다. 저는 명씨에 대한 자부심이 남습니다. 많은 성씨가 있지만, 어떤 성씨보다도 큰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이렇게 장학금까지 주셨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 앞으로 대학을 마치면 자격증을 따고 난 뒤, 홍콩이나 호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크게 보며 제 삶을 멋지고 크게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더 큰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장학회를 위해 작으나마 저의 힘을 적극 보태겠습니다. 그 인연의 시작이 대하장학금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장학금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명씨대중회 상임이사 **명 화 진**

시조, 명옥진 황제 649주기— 51명의 우리 명씨 추모방문단 시제를 올리고 돌아오다

2015년 올해로써 명씨 시조이신 중국 대하국 명옥진 황제님께서 돌아가신 지 649년, 우리 명씨대중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제649주기 시제를 올리고 돌아왔습니다.

시조 황제께서는 1329년 9월 9일(음) 호북성 수주시 수현 매구리에서 탄생하신 후, 중국 중경 주변의 6개성에 이르는 너른 지역에 이르는 대하국의 황제로서 등극하셔서 선정을 베푸시다가 안타깝게도 1366년 2월 6일(음) 중경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인천공항을 떠난 일행 51명(당초 60명에서 9명 취소)으로 구성된 우리 추모방문단은 '명씨대중회 중경 예릉시제단(단장: 명광길 회장)'이라는 이름하에 시제 겸 관광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시제일에는 장엄하고도 숙연한 분위기로,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비록 짧은 일정에 뻘뻘하게 짜인 여정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 해로 벌써 중경예릉 방문이 두 번째 입니다. 우리 일행은 시제음식을 서울에서 준비해가는 등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제를 위한 추모방문은 결코 다른 성씨의 종친회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행사이기에 뭔가 모를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모방문은 우리 대중회가 매년 다녀왔던 중경 예릉과 호북성 수주시의 탄생지 기념관외에도 작년 연말 낙성식을 마치고 새롭게 탄생한 양신에 있는 중화

명씨사당까지 돌아와야 하는 까닭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공식일정을 제대로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느라 관광여행은 다소 짧은 이틀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강행군처럼 진행되었던 방문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종친 어른들은 여행의 피로감을 감당치 못해 입술이 부르트는 등 힘들어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명씨가 아닌 다섯 분의 타 성씨 분들조차 명씨사당 두 곳과 탄생지기념관 등 세 군데나 돌아야 하는 벽찬 방문일정 속에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방문단 일행이 가야 하는 곳이 서·남·북으로 분산되어 있고, 먼 거리여서 이동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중국이 매우 너른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시조께서는 이 너른 땅을 동서남북으로 말로 달리셨습니다. 우리 방문단 모두가 시조황제를 떠올리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일행 모두가 어려움을 잘 견뎌주셨습니다. 송조정신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중경에서 의창으로 가는 길은 비행기로 불과 두 시간이면 가능했지만, 30여 만원이 소요되기에 경비절감을 위해 1/10 가격의 고속철을 이용했던 까닭에 한 밤중에 도착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종친 사당이나 기념관 방문을 위한 것이었기에, 아침 8시에 출발하여 밤 8시 목적지에 도착하는 강행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날 우리 일행은 저녁 8시경 중경공항에 도착하여 중경명씨종친회 초청으로 열

린 만찬에 참석하였는데, 향신료 냄새가 진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만찬이라서인지 모두 식사를 잘해주셨습니다.

예루 시제가 있는 둘째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난 선발대가 오전 6시에 먼저 예루에 가서 시제준비를 한 후, 나머지 일행들이 이동해서 시제를 올렸습니다. 시제 음식은 시제를 구경하러 몰려든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작은 선물로 떡이라도 만들어 가서 나눠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행이 시제를 마친 후, 시조 황제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감(甘)씨들이 간단하게 과일 바구니를 가져다 놓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명씨와의 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같은 핏줄임이 밝혀지면 제례를 함께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중화명씨들은 감씨를 이미 시조 황제의 후손으로 인정하고 행사를 함께 해오고 있는 터이지만, 우리 대종회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고 관계 파악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불쑥 그들을 시조 황제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례위원장인 명석호 고문과 종친들은 서울과 중경에서 준비한 제물로 제사상을 정성껏 차린 후, 초헌관은 명광길 회장, 아헌관은 명관식 창원지방종친회장, 종헌관은 명영국 고문, 축관은 명석호 고문, 집사는 올해도 명태식 부회장과 명제만 이사께서 맡아서 제례를 진행했습니다.

초헌관이 강신의 예와 4배의 예를 올린 후 다시 분향 헌작하고, 명석호 축관의 독축에 이어 아헌관, 종헌관 순으로 분향 헌작하였으며, 종친 모두가 4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시제에 참석한 중경시 강북구청공무원 10여명과 지난 밤 우리 일행을 만찬에 초대했던 중경의 명씨종친회 임원 10여명은 이구동성으로 멀리 이국땅까지 찾아와서 제사를 올리는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려서 저녁 8시경에 도착하였으나, 양신포텔의 저녁식사가 마감됐던 까닭에 인근의 야시장에서 중국의 정취를 느껴가며 식사를 하는 뜻밖의 즐거움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넷째 날 오전, 우리 일행은 작년에 거창하게 준공식을 했던 중화명씨 사당을 방문, 참배를 하고나서 오후에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동풍을 빌려 화공으로 조조를 물리친 적벽대전장을 관광했습니다. 오나라 손권과 촉나라 유비가 위나라 조조의 80만 대군을 물리친 역사상 유명한 유적지로서 볼 것이 너무 많았으나, 안타깝게도 저녁 식사시간에 쫓겨 빠르게 둘러보는 정도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무한시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무한시 최대의 관광명소인 동호를 관광하고, 중국 당남 3대 누각 중 하나인 황학루를 관광했는데 황학루는 보수공사중이어서 제대로 구경을 하지 못하고 전망대에서 시내를 구경한 후 내려와야 했습니다.

2,400여 년 전에 호북성의 북쪽에 있었던 '중국' 제후의 묘에서 1978년 발굴된 예기를 비롯한 악기와 병기 등 15,00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 호북성박물관도 많은 구경거리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로 수박겉핥기식으로 구경하는 것에 그쳐야 했습니다.

추모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 우리 일행은 오전 8시 이른 시간에 호텔을 나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버스 속에서 도시락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추모방문 일정은 짧은 일정동안 세 곳을 돌아야 했던 까닭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시제를 지낸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셋째 날, 우리 일행은 수주시 탄생지기념관으로 이동하는 데에 예상했던 3시간 반보다 무려 2시간이 더 걸렸으나 일행 누구도 불평이 없으셔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방문단은 기념관 도착 시간이 늦었고, 비도 내렸던 까닭에 기념관 관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수주 수현지역 공무원들을 오찬에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중국식으로 다소 많은 술을 권하고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찬을 마친 후 우리 일행은 중화명씨사당이 있는 양신을 향해 버스로 5시간을

비록 짧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우리 추모방문단 일행은 황손으로서 또 한 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넘도록 한 해도 빠짐없이 예루 시제를 다녀오신 종친 어르신들을 포함, 이번 방문단으로 옛세의 일정을 함께 보낸 우리 종친여러분들의 숭조사상과 끈끈한 종친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모방문기를 매듭짓습니다.



대중회 사무국장 명 순 식

제37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 우리 명씨들 또 다시 반갑게 만나 지난 일을 돌아보며 미비한 점들을 채울 것을 다짐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회의를 마치다

2015년 5월 5일 오전 11시, 제37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408번길 49(구주소: 파평면 두포리 50-1)에 위치해 있는 대하과안기념관에서 종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장 주변은 올해 이른 봄 포천의 명노석 감사가 기부한 흰색과 빨강색의 철쭉꽃과 나무들로 예쁘게 단장된 모습이었고, 날씨마저 시조황제님의 은총을 받은 듯 아주 쾌청해서 행사장 분위기가 더욱 돋보였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의례, 대중회장 인사, 내빈 및 지방종친회장 소개, 공로패 수여(명위진 전 명씨대중회장, 명노준 전 명씨대중회 사무국장), 명씨어린이 창작작품공모전 시상, 2014년도 사업 및 사업예산 결산보고와 감사결과 보고,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감사선출(명제희 이사), 폐회, 그리고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공로패를 전달받은 명위진 전 대중회장은 대중회 재정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순금으로 만든 공로패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 이를 즉석에서 반납, 종친회 기금으로 사용해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명씨어린이 창작작품공모전 시상식에는 수상을 한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의 부모가 함께 참석하여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 올해 정기총회의 모습이 특별했던 것은 종친가족들이 직접 만든 오찬을 함께 했다는 것이었다. 대중회는 지난해까지 오찬을 외부 업체에 맡겨왔었으나, 대중회의 주요행사 시 우리 명씨 집안만의 독특한 잔치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잔치분위기를 더욱 살릴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위해 산악회 명영식 회장을 비롯한 대중회 명화진 상임이사 부부, 명태식 부회장 부부, 명노석 상임이사 부부, 명지성 상임이사, 명순식 사무국장 등 산악회원 10여명이 명광길 대중회장과 함께 행사 전날부터 꼬박 이틀 동안 준비했다.

이에 앞서 대중회는 이번 정기총회 오찬을 위해 250여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 그리고 대형 술을 포함 주방그릇 일체를 새로 구입했다. 이 때문에 약 1,0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더 지출되었지만, 앞으로 행사비 중 오찬비용이 크게 절약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자체적인 오찬 만들기 계획을 추진했다.

음식 만들기의 총 지휘는 명화진 상임이사가 맡았는데, 명화진 상임이사는 각종 재료를 최고의 품질로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하는 것은 물론, 며칠 전부터 깎두기와 배추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가서 준비했고, 명영식 상임이사는 냉동차에 이를 직접 실어 날르는 등 오찬 만들기에 엄청난 정성을 들였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음식 맛을 본 종친들이 행사장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음식 맛을 칭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며칠 전부터 오찬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고, 행사 전날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해서 준비했지만, 정기총회 행사 당일 여전히 일손이 모자랐다. 젊은이들의 모임인 청년회가 활성화되고, 대하장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더 만족스런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중회 임원들은 정기총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종친들에게 아쉬움과 반가움이 섞인 인사를 전하며, 10월 3일 시제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10월 시제에는 더 많은 종친들이 함께 모여서 시제를 올리며, 우리 종친간의 끈

끈하고 따뜻한 정을 담백 느끼고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대하과안기념관에서 열린 제37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 행사를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에게는 명씨대중회 명광길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타올과 포장된 잔치 떡이 기념품으로 전달되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각 지방에서 오셔서 행사에 참여해주신 종친 여러분들과 행사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임원들과 임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뒷마무리를 해주신 종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씨의 시조와 뿌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던

제1회 명씨어린이 창작작품공모전 —

대상 명세진 어린이외 9명의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명씨대중회와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지난 5월 3일, 우리의 미래인 전국의 명씨 어린이들에게 시조 황제와 뿌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제1회 명씨어린이 창작작품공모전 응모작 중 부문별 수상작 총10작품을 선정 명씨대중회 홈페이지와 대하장학회 카페를 통해 발표하고, 5월 5일 제37차 명씨대중회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시상식에서 글쓰기부문 금상을 수상한 명가람(경기 용인효자초등학교 3학년)어린이는 상금으로 받은 50만원을 대하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창작작품공모전 심사는 공모전이 처음으로 열려 홍보가 부족했던 까닭에 응모작품이 많지 않아서 우리 대중회 임원 자체 심사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심사는 공모전 진행을 총괄했던 대중회 명광주 부회장(한성대학교 예술대학 교수)과 대중회 명순구 상임이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명순식 대중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명광주 부회장은 공모전의 응모작품 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작품의 수준은 상당히 훌륭하 수준이었다고 심사소견을 전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와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그리기부문 입상작

대상 : 명세진(서울 홍익대학교 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1학년)
 금상 : 강시은(서울 압구정초등학교 5학년)
 은상 : 명다영(충남 청양초등학교 2학년)
 동상 : 명한경(서울 연남초등학교 4학년)
 특선 : 명솔비(경기 수원 대선초등학교 3학년)
 장려상 : 명재현(충남 보령 명천초등학교 5학년)

■ 글쓰기부문 입상작

금상 : 명가람(경기 용인 효자초등학교 3학년)
 은상 : 명재현(충남 보령 명천초등학교 5학년)
 동상 : 명솔비(경기 수원 대선초등학교 3학년)
 특선 : 명지훈(서울 강서 월정초등학교 4학년)

■ 입상작별 시상내역

대상 : 명씨대중회장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금상 : 대하장학회 설립자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은상 : 대하장학회 이사장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
 동상 : 명씨대중회 고문상 (상장 및 상금 10만원)
 특선 : 명씨대중회 부회장상 (상장 및 상금 5만원)
 장려상 : 명씨대중회 (상장 및 상품)

대상, 금상 수상작 및 수상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명세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림 대회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그림을 그려냈는데 대상을 받아서 너무 기쁠요.

저는 아빠와 함께 시제에 갔을 때, 아빠와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절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렸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동생들이랑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글쓰기랑 그림을 같이 내고 싶어요. 동생이 크면 동생에게도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낼 거예요. 고맙습니다.

대상(그리기부문) 명세진



명세진 엄마(김가람)가 덧붙이는 소감

세진이는 일 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와 함께 명씨대중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정기총회와 시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나들이도 합니다. 유모차를 타고 다니던 아이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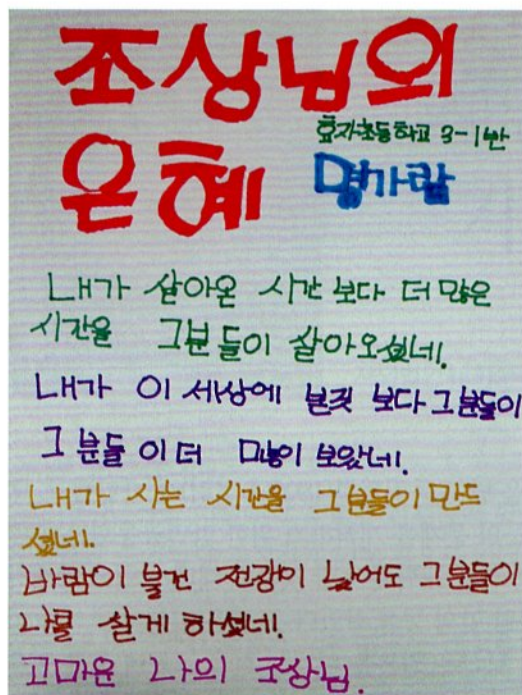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씩 질문도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이 명씨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정기총회와 시제를 함께 하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세진이 또래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나만의 의미가 있지만 세진이 또래가 있었다면 좀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씨어린이 창작작품 공모전이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명씨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진이는 공모전 준비를 무척 즐겁게 했습니다. 뜬금없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느꼈던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시제 모습을 그리면서 가족들에게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살아있는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아이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또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진이가 그림을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람비에 옷이 젖듯 자연스럽게 뿌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세진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은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때인가 어린아이가 무얼 안다고 시제에 함께 가자고 하실



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대상을 받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저희 아이에게 큰 상을 받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명씨 어린이들이 공모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명씨대중회 행사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으면 합니다.



금상(글쓰기부문)
명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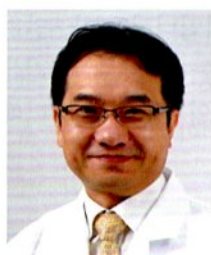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금상을 받은 명가람 이에요. 제가 금상을 받아서 참 기뻐요. 그리고 저를 뽑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상금은 발표가 났을 때부

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쓰였으면 더 좋겠다고 아빠와 같이 이야기했어요. 제 상금이 더 좋은 곳에 쓰인다는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더 큰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가람이가 될게요. 어른들께서 우리들을 위한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주세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구경할 거리가 많으면 자주 가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금상(그리기부문)
강시은



저는 명씨어린이 창작작품공모전에서 그리기 부문 금상을 받은 강시은입니다. 5월 5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시상식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어머니와 같은 명씨라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명씨들이 모여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어머니의 시조 명옥진 황제님은 황제가 돼서는 물론, 황제가 되시기 전부터도 착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셔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셨고,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잘 쏘는 용맹스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면서도 웃으시는 너그러운 황제님, 다른 장군의 칼은 두 동강이 났지만, 황제님의 칼은 그대로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황제의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가 자랑스롭습니다. 저도 엄마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제게도 그런 훌륭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큰 상을 안겨주신 명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승권 교수의 의학 상식 ③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암역학연구과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 **명 승 권**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약칭 메르스가 진단된 이후 6월 9일 오전 11시 현재 총 108명이 확진되었고 9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신종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메르스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 심각성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메르스의 원인 바이러스는 한가닥으로 이루어진 RNA바이러스 일종인 코로나바이러스다. 일반 감기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는 200여종의 바이러스 가운데 라이노바이러스가 50% 내외를 차지하고 그 다음 순위로 약 15% 정도는 코로나바이러스다. 2002년도 중국에서 시작되어 유행했던 사스바이러스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원인바이러스도 코로나바이러스며 메르스는 현재까지 발견된 여섯 번째 코로나바이러스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환자가 보고되었지만 나중에 시간을 거슬러 추적해보니 그해 4월에 요르단에서 첫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메르스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갖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4월 이후 2015년 6월 5일 현재까지 총 1211명의 환자가 확진되었고 이 중 492명이 사망해 40.6%의 사망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총 25개국에서 발생했는데 중동지역 10개국, 유럽 8개국, 나머지 7개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0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중 450명이 사망했고 그 다음으로는 76명의 아랍

에미레이트였다. 6월 9일자로 108명이 발생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를 제치고 2위의 발생국이 되었다.

메르스의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을 통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 비말감염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환자와 환자의 가족, 의료진의 감염, 즉 병원내 감염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공기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감염이 되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 오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빠르면 2일에서 늦게는 14일 이내에 평균 5-6일 정도에 증상이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 호흡곤란이 가장 많고 일부에서 가래, 구토, 설사 등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는 감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인들은 무증상이거나 감기나 약간 심한 독감 정도의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책으로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피하고 손씻기를 자주 하는 등 일반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치료는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 등 항생제를 쓰면서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증요법을 사용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메르스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현재외국(주로 중동)의 데이터를 보면 4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몇 주 정도 더 지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6월 9일 현재 108명의 환자 중 9명이 사망해 8.3%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첫 발생지인 중동지역의 경우 전례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기도 했고 우리나라보다 의료수준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도 사스나 폐렴과 비슷한 10%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메르스로 확진된 모든 사람이 병원내에서 감염되었고 사망자의 경우 만성질환, 악성종양 기타 면역저하상태 등 기저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히도 사스나 신종인플루엔자처럼 공기를 통한 지역사회감염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수는 기백명 수준에서 종료될 전망이다. 감염이 되었다라도 의료인 등 건강인의 경우에는 60% 이상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메르스 발생 초기에 정부와 보건당국의 방역대책이 미흡했다는 점과 환자들이 진단을 위해 병원을 자주 옮겼고, 다인실이 많고, 입원을 위해 응급실에서 2-3일 이상 머무는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의료환경 등이 감염자수가 늘어난 중요한 이유로 생각된다.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의 1차 유행이 종료되었고, 삼성서울병원의 2차 유행이 눈에 띄게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차 유행만 막아낸다면 앞으로 1주일 내로 메르스 확산은 멈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1-2주 안에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나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평소 감염예방 수칙인 자주 손 씻기, 기침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등을 실행하도록 하자.



우리 명씨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먼저 실천해서 성공의 기회로 만들자!

21세손, 雲石 明英男(濟河) 명 영 남

나는 외손자 교육문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딸의 집에서 2개월여 지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내 생각의 중심에는 세월호 사고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국가안보 문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있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하여 국운이 쇠하지 않을까하는 염려였다.

마치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가고 심지가 타들어 가는 것을 보는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아니면 캄캄한 밤하늘에 번개와 뇌성이 치고, 점점 더 암흑세계로 빠져드는 세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나 할까. 나는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오매불망 전전궁궁했다.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리들의 가족과 후예,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불현듯 도산 안창호 정신을 기치로 다시 우리의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의 글은 그러한 나의 생각을 두서없이 쓴 것이다.

미국에서 다시 생각해본 도산 안창호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변해서 변화를 싫어하고 움직이고 이동하거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인지 나는 미국에 가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딸이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외손자가 초등학교를 전학하게 되어 등학교 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미국을 향했다.

나는 공교롭게도 미국을 갈 때마다 커다란 격동과 큰 변화가 회오리바람처럼 불어 닥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은 일 년 이상을 세월호 사고에 손발이 묶여 꼼짝 못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교육·군사 등 모든 부분에서 부패와 타락, 불법과 위법,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무겁고, 아팠다. 온 국민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환골탈퇴의 결단과 각오로 과감히 부패와 환부를 칼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과 사상으로 재무장하고 양질의 일등 명품국민이 되도록 하자".

우리는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수한 민족으로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열정이 있기에 얼마든지 세계 최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내면서 그분의 진면목을 알았고, 동상에 참배하면서 그분의 이상과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도산의 훌륭한 정신과 발자취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도산의 정신과 사상에 심취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잊고 살 정도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77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횃불이다.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는 등대이다. 도산은 성실과 수양 그리고 사랑으로 일관한 민족의 교육자였고, 독립을 위해 생애를 바친 애국적인 정치가, 사상가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위대한 결단

1878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난 그는 풍모와는 다르게 빈농의 선비 집안 자손이다. 도산이 17세 때인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도산은 일본군과 청군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것을 보며 분개했고, 그로 인해 평양이 폐허가 되는 것을 지켜봤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그는 일찍이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산은 서재필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고, 독립협회(1896년 설립)에 가입했고, 백성을 계몽하여 정치, 외교, 사회 등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만민공동회라는 대중집회에서 21세의 젊은 나이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쉽고 명쾌하게 연설했다. 도산이 본 조선은 바람 앞의 등불 같았다. 도산은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꿰뚫고 있었다. 도산은 일본을 이기는 길을 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도산은 '무실역행(務實力行)'을 부르짖었다. '무실역행'은 도산 평생의 좌우명(motto)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남다른 지혜

도산은 16세의 어린나이에 서양의 선교사가 운영하는 배재학당의 문을 두드렸다. 면접시험장에서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질문했다. "어디서 왔는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한 8백리쯤 됩니다." 선교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래? 자네는 평양에서 공부하지 왜 먼 서울까지 왔는가?" 도산은 선교사에게 반문했다. "미국은 서울에서 몇 리입니까?" "한 8만리쯤 되겠지..." "선교사께서는 8만리 밖에서도 가르쳐 주러 왔는데, 겨우 8백리를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산은 배우려는 자신의 의지를 이 한마디에 담아 전달함으로써 미국인 선교사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도산은 사람들에게 '건전 인격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 즉 형식에 치우치고, 게으르고, 얼렁뚱땅하고, 비겁한 성격들을 고쳐야 우리 민족이 잘 될 수 있다는 '민족 개조론'을 주창했다. '무실역행'은 참되고 실속 있도록 힘써 실행하는 것으로, 민족부흥과 사회개혁을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무실정신은 참되기 운동, 거짓말 하지 않기 운동이며, 둘째, 충의정신은 사물과 일을 대할 때는 정성을 다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신의와 믿음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셋째, 용감정신은 옳음을 보고 나아가며 불의를 보고 물러서지 않는 정신이며, 넷째, 역행정신은 전력을 다하고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정신이다.

미국에까지 세워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



미국에서의 도산에 대한 존경과 추모 열기는 한국이상이므로 대단하다. 도산은 1902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1903년 리버사이드로 이주, 8년간 오렌지농장의 한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독립의식을 환기시켰다. 도산이 정착한 곳인 이곳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8월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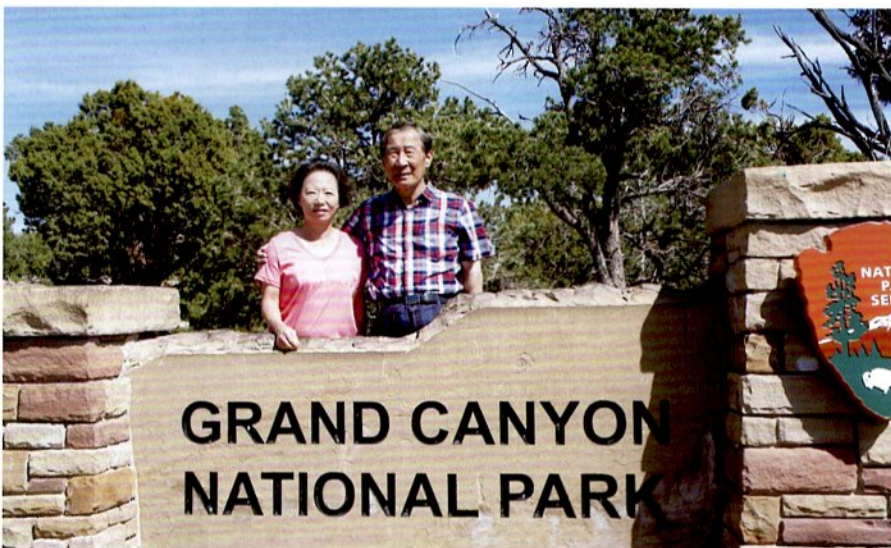
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LA 오렌지카운티 곳곳에는 도산을 기념하는 광장, 동상, 기념우체국, 인터체인지, 패밀리 하우스가 있고, 도산의 날이 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목사를 기리는 세계인권명예의 전당에도 2012년부터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산의 이름과 발자취가 전시되고 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우리 종친들이 다시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자!

도산 선생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생명과 정신의 양식으로 충분하다. 훌륭한 가르침을 우리 종친들이 앞서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자. 그것이 곧 앞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도산의 가르침 몇 가지를 더 적어둔다.

-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하는 일에 정성을 다 하여라.
-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 자기의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스려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의 국가와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책임감이고 주인의식이다.
-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 보다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성현, 선각자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도산 선생은 따뜻하고 애뜻한 민족사랑,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분의 말씀 중 '민족을 '우리 핏줄, 우리 종친'이라고 바꿔서 우리 종친들 하나하나가 가슴에 꼭 담고 살아가자. 이것이 도산 선생이 말하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이다. 훌륭한 가르침의 골자이다. 우리 명씨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



재미교포로, 재미동포로, 명씨로 살며

명 광 일

나는 재미교포(僑胞)이다. 아니 재미동포(同胞)이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전자를 고른다. 이유는 말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민 초창기부터 써오던 말이다. 한 동안 이곳에서 '재미동포로' 바꿔 쓰기 운동이 있었다. 이유는 교포의 교(僑)자(타관살이, 임시거처, 빌어먹을 등)의 한자 의미가 동포보다 하위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는 같은 '동' 자가 들어간 동포의 단결력을 염두에 둔 노력이기도 했다. 영사관이 주도했던 기억이 있다. 얼추 20년 가까이 됐다. 그러나 나는 쉽게 말이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동포, 동무, 하는 식의 북한식 용어가 비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버릇이 지금까지 왔다.

미국에 살면 성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를테면 김씨는 Kim으로 적는다. 김이다. 한 30년 미국에 살면 자신은 마이클 김이 된다. 명씨도 예외가 없다. 나는 영문으로 Myung을 쓴다. 더러는 Myoung, Myong 등을 쓰기도 한다. 대부분 나와 같은 영문을 쓴다. 발음은 각양각색이다.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마이잉'이다. 다음이 미잉, 미웅, 명이다. 이름은 어떤가, 명광일의 Kwang은 썩이나 쿡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나는 '썩 마이잉'이다. 우리 명씨 조상들이 들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불호령을 하지 않으셨을까. 아무튼, 나는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살며 마이잉에 익숙하다.

명씨는 콜로라도에서도 희성이다. 친척 몇몇을 제외하고 만난다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내가 명씨를 처음 만난 건 이곳으로 이주하고 5년째 되던 해였다. 여지분이었다.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명씨를 같은 반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름도 잊지 않는다. 명노향, 그도 지금은 중늙은이가 됐겠다. Facebook을 열고 5년 만에 명씨를 무더기로 3명 만났다. 세 번 다 5년 주기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는 믿음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나는 명씨를 만나면 반갑다. 자랄 때부터 드물다는 사실이 그렇게 만들었다. 타국에서 만나는 동포 중에서 명씨 성을 가진 사람만큼 기쁜 일은 드물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디 어디 누구네 누구의 친인척이 된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이웃이 내게 있었다. 이름은 제니퍼 존슨(명선자)이다. 나는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를 기억한다. "나는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도 못해요"라며 어려워했다. 1955년에 고국을 떠났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나는 명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반값으로 해줬으나 그녀는 극구 사양하며 음료수까지 사 왔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 우리 가족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버지 고향도 평양 대동강 상류 승호리, 어머니도 황해도 해주 그리고 1·4후퇴 때 월남한 사실도 거짓말처럼 같았다. 그녀는 고향이 서울이다. 나와는 16년 차이가 났다. 그녀는 남편 고향 오하이오로 떠날 때까지 우리 가족의 소중한 고모였다. 무뚝뚝한 대부분의 우리 명씨를 생각하면 달라도 많이 달랐다. 그녀는 말했다. "명씨는 예전부터 귀했고 드물다. 고귀하기에 서로를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명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녀는 지금 연락이 안 된다. 마지막 연락이 LA였다. 잘 계실 줄 믿는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명씨의 한 분이다.

명 광 일

1960년 6월 12일 생. 1986년 도미. 1992년부터 콜로라도 오로라 시에 살고 있으며, 2남 1녀를 두고 있다. Lincoln College of Technology at Denver(자동차와 졸업, 개솔린 자동차학 학사), 서울디지털대학교(문예 창작과 3학년 편입 졸업, 문학사)를 나왔다.

콜로라도 주 한인회 이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기 콜로라도 지역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13년 재미시인협회(구 미주 시인협회) 시 부문 신인상과 2014년 미주 한국일보 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현재, 콜로라도 타임즈 신문에 시를 연재하고 있으며, <글마루 뒤란> 페이지 주필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PO BOX 460505 Aurora CO 80046-0505, 휴대 전화: 720-278-9021(미 콜로라도), 이메일: trieit888@gmail.com

재단법인 대하장학회— 생계곤란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12명에게 각50만원씩, 총600만원의 복지금을 전달, 따뜻한 설날을 맞게 했다

재단법인 대하장학회는 명절인 설을 맞아 전국의 명씨가족 중 생계곤란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총 13명의 복지금 지원신청을 받아 이중 12명에게 지난 2월 16~17일 양일에 걸쳐, 1인당 50만원씩 총600만원의 복지금을 전달하였다.

대하장학회 이사회는 지난 해까지는 1회 본인 신청 또는 지방종친회 추천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추석과 설 2회에 걸쳐 복지금을 지급해오던 복지금 신청과 지급규정을 변경,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간단한 서류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올 추석을 즈음한 복지금 지원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지방종친회의 추천을 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석 복지금 지원 신청은 추석 이전 대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문의: 대하장학회 사무총장 명광주 010-4267-3610>



명순구 교수의 시사법률 ③

해약금은 실제 지급액이 아닌 약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중회 상임이사, 고려대 법대 교수 **명 순 구**

부동산매매와 같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금이 오가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기능한다(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돌려줌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해약금이란 자유로운 해제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A는 2013. 3. 25. B로부터 아파트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 날인 2013. 3. 26. 매도인 B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했다. A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 B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B는 다음 날인 2013. 3. 26.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고 피고의 은행계좌를 해지하고 폐쇄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A는 같은 날 오전 11시 경 B의 은행계좌에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계좌 폐쇄로 송금에 실패하자, 1억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공인중개사로부터 B가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B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하고 A는 B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물으려 한다.

법률상의 쟁점은 계약금의 구체적 범위이다. B는 계약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A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해약금에 의한 해제이므로 손해배상 등 다른 책임은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포함), A는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계약금은 약정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계약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전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B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으로 A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A에게 돌려주는 한편, 더 나아가 계약위반으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 된다. 이 대법원판결의 1심과 2심도 계약금의 구체적 기준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으로 판단하면서, 1심은 "B는 A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A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하여 "B는 A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사건 가운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7차 정기총회 찬조내역

(단위: 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구순례	30,000	명인세 고문	200,000
명건식	100,000	명장근 고문	200,000
명경식 상임이사	1,000,000	명재균	50,000
명계복	100,000	명재동	100,000
명광일	50,000	명재문 상임이사	300,000
명국식	50,000	명재익	100,000
명근식 고문	500,000	명재인	50,000
명노경	100,000	명재춘 - 보령	200,000
명노공	100,000	명재화	30,000
명노문 고문	500,000	명제걸	100,000
명노석 감사	200,000	명제광	50,000
명노선	50,000	명제균	100,000
명노성	100,000	명제만	100,000
명노승 명예회장	300,000	명제방	200,000
명노영 - 고흥	200,000	명제성	50,000
명노영 - 청양	100,000	명제연	100,000
명노우	100,000	명제중	50,000
명노주 - 구리	100,000	명제춘	90,000
명노준 전사무국장	200,000	명제항	100,000
명노형	100,000	명제호	50,000
명달식	50,000	명청일	50,000
명대옥	30,000	명춘식	50,000
명도진	100,000	명태식 부회장	200,000
명동성 부회장	300,000	명태옥	50,000
명동현 이사	200,000	명학식	100,000
명민식	50,000	명한식 - 수원	100,000
명봉식 고문	200,000	명해승	100,000
명상하 - 강진	100,000	명형철	100,000
명석병 - 해남	100,000	명홍성	50,000
명석호	100,000	명환주	100,000
명순구 상임이사	200,000	명환철 - 인천	100,000
명시준	50,000	명환철 - 청양	100,000
명영국 고문	200,000	명효식	100,000
명영만	100,000	명효진 이사	200,000
명영석 이사	300,000	명희철	100,000
명영준 상임이사	200,000	보령총친회	200,000
명영철	100,000	부산총친회	200,000
명용표	100,000	수원총친회	200,000
명위진 명예회장	3,000,000	이병수	30,000
명을식	50,000	창원총친회	500,000
명응식	100,000	청양총친회	300,000
명의식	100,000	합 계	14,860,000

특별찬조 내역

1. 명노석 감사: 추귀홍 대사 경모사 기념식수(2014. 9. 28) 및 기념관주변 보식용 나무(2015. 4. 11)
2. 명경식 상임이사: 신년하례회(2015. 1. 15) 만찬비용
3. 명위진 명예회장: 신년하례회(2015. 1. 15) 마플러
4. 명재춘 보령회장: 신년하례회(2015. 1. 15) 맛김
5. 명태식 부회장: 경모사 고급 향토와 촛대(2015. 4. 11)
6. 명성순 종친(수원 명가순대 대표) 제37차 정기총회(2015. 5. 5) 동동주

2014년도 임원 연회비 납부현황

명광길 회장	300만원	명창근 상임이사	100만원
명동성 부회장	200만원	명경식 상임이사	100만원
명호근 부회장	200만원	명지성 상임이사	100만원
명태식 부회장	200만원	명재문 상임이사	100만원
명광주 부회장	200만원	명영준 상임이사	100만원
명노석 감사	100만원	명순구 상임이사	100만원
명화진 상임이사	100만원	명순식 사무국장	200만원
명영식 상임이사	100만원	계 2, 200만원	

우리신문의
맨 뒷면은 광고란입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대중회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명씨대중보 문의 및 구독신청

• 명씨대중보 편집인

명광주 010-4267-3610
이메일: adpromyung@naver.com

• 명씨대중보 편집국장

명순구 010-4007-1847
이메일: skmyoung@korea.ac.kr

• 대중회 사무국장

명순식 010-2008-8151
이메일: nismyung@daum.net